

## 통신 소프트웨어 최고 정상노크

팩스맨,보이스맨등으로 팩시밀리와 전화기를 자살케 한 회사가 있다. 바로 통신용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인 (주)새롬기술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합 통신 소프트웨어 패키지 '새롬 세계로'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 통신 SW 최고 정상

지금과 같은 멀티미디어 환경의 완벽한 발전을 위해서는 통신기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몇몇 통신 에뮬레이션 외엔 아직도 우리 통신 소프트웨어 시장은 척박하기만 하다. 이런 국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술력으로 도전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 분야에 걸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새롬을 이 분야의 선도자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즉, 각종 메일 전송, 관리기능과 자동응답 전화 뽀뽀호출, 음성녹음등 이 모든 기능을 wizard방식으로 처리한 팩스맨프로, 비디오폰과 화상통신에 화이트보드까지 가능한 첨단 통신 기능의 텔레맨, 그리고 인터넷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지원 소프트웨어 데이터맨 프로등은 새롬이 국내통신 소프트웨어 시장을 평정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매년 4 ~ 5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새롬은 불과 몇년 안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삼동에 위치한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기자재를 다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좁아, 바닥에 신문지와 박스를 깔

고 밥을 먹으면서 창업이 되었다. KAIST 동기생들인 오상수(대표이사), 최진근(현 기술기획실 실장), 최환익(현 연구개발부 부장), 조원규(현 마케팅부 부장)들이 창업 멤버이다. 특히 서울대 전자계산기 공학과 동기생인 오사장, 조 부장, 최부장은 대학시절부터 지금과 같은 컴퓨터 분야의 기업 설립을 꿈꿔온 막연한 사이이다.

절대불리의 상황 속에서 오직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된 창업 첫해는 아무런 매출액 없이 프린터 드라이버 개발 용역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93년 12월 개발된 윈도우용 팩스 소프트웨어인 FaxMan β- 버전과 1.0의 상용버전의 완성은 새롬의 큰 출발을 앞둔 서막이 되었다. 드디어 94년 1월 (주)한화통신의 전 모델에 국내 유일의 팩시밀리 소프트웨어라는 장점을 가지고 납품되었다.

FaxMan이라는 제품은 단연 이 분야에서 우수성이 입증되며 돈보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통신, 현대전자, 뉴텍컴퓨터등과 같은 대기업을 위시하여 한화통신, PC라운드, 한빛정보통신, 서울테

이타통신 등의 2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계약과 납품이 이루어졌다. 이는 곧 회사의 급속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창업시 1억원 남짓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여 아무런 매출액도 이루지 못했던 창업 첫해에 비해 95년도에는 22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괄목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94년 8월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했으며, 자본금도 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새롬에게 있어서는 또 한번의 중요한 해였다. 단순한 OEM형식의 제품판매에서 탈피했으뿐만아니라 통신업체나 네트워크업체에서 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멀티미디어 통합 통신 소프트웨어업체로 발전하기 위한 제 2의 창업을 한해이기 때문이다. 통신응용프로그램, 멀티미디어 응용프로그램, 문자인식, 음성인식, 인터넷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중요한 핵심기술의 보유는 계속적인 새롬의 성장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롬은 미래 지향적인 목표가 있고, 해가 갈수록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이다. 과연 무엇이 (주)새롬기술을 너무나도 짧은 기간 사이에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평균

연령 27세,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활동, 특별히 누구에게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분위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완수하는 새롭인의 자세가 모든것을 가능케한 것이다.

개발실은 새롭의 핵심이다. 그래서 가장 자유스럽게 보여진다. 단순한 기술자라기 보다는 예술가로서의 그들은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그들만의 작품을 완성해내면 된다. 그밖에 영업, 상품기획, 기술홍보, 경영, 총무팀등의 세부적인 부서들도 개발부에 비하면 덜 하지만 비슷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도 그저 출근했다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가 뭐라 안해도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일하는 사원들이 대부분인 곳이 새롭이다. 이것이 바로 새롭이 더욱 힘찬 도전을 가능케 하고 성장시키는 배경인 것이다.

지난해 제2의 창업과 팔팔한 젊음으로 뭉쳐진 새롭은 나날이 회사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 일면으로서 마케팅 분야에서의 약세를 보완하여 매출액의 신장을 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팩스맨, 보이즈맨, 페이지맨등의 맨 시리즈, 최초의 통합통신 소프트웨어 '새롭 세계로', 그리고 계속되는 멀티미디어 기반의 통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시판에 주력하여 올 '96년에 70억이라는 매출액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윈도우즈용소프트웨어 보이즈맨의 영문 버전을 세계시장에 내어놓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주)새롭기술의 얼굴은 바로 팩스맨 등을 위시한 제품들이다. 팩스맨, 보이즈맨, 데이터맨, 뮤직맨, 북맨, 페이지맨 등의 초기 맨시리즈로부터 팩스맨프로, 텔레맨, 데이터맨 프로, Fax-Server등의 소프트웨어가 새롭기술을 대표하고 있다.

새롭기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팩스맨'은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윈도우상에서 팩스를 송수신 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효율적인 팩스파일관리, 송수신 예약, 멀티테스킹까지 제공하는 우리 순수 기술로 만든 화제작으로 70만 COPY 이상의 실적을 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보이즈맨'은 윈도우즈용 자동 응답 소프트웨어로 실제 자동 응답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디자인 되어 쉽게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으며, 여러개의 음성 사서함과 각각의 암호를 제공하여 동시에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팩스맨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북맨'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이러한 정보를 통신이나 팩스 소프트웨어에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페이지맨'은 윈도우상에서 빠른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새롭세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패키지는 팩스맨 프로, 텔레맨, 인터넷 초보자가 손쉽게 쓸 수 있는 한글 메뉴 방식의 데이터맨 프로의 세가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데이터맨 프로는 PC모뎀 통신과 TCP/IP 네트워킹 기술이 결

합된 제품으로 모뎀을 통해 편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네스케이프, 모자이크와 같은 윈도우즈용 웹 브라우저로 자체 TCP/IP 스택과 PPP/SLIP모드를 지원하여 별도의 WINSOCK 프로그램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통신, 국내 순수기술의 웹 브라우저와 Telnet, FTP등의 기능까지 한꺼번에 지원, 초보자가 실수하기 쉬운 여러 번거로운 작업을 통합하여 손쉽게 PC통신 및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 했다.

텔레맨은 DSVD 모뎀과 오버레이 보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PC에서 일반 전화선으로 화상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디오 폰 기능, 상대방의 관련 자료를 보며 말하고 듣고 drawing 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 모뎀 사용자도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있고 서비스 목록을 DB화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PC소프트웨어를 FaxServer등 워크스테이션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그밖에 노래방, 뮤직맨 등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도 비약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막강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96년 매출목표 70억, 단순 OEM에서 탈피한 제품출시, 미래 지향의 창조적이고 참신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등의 전문 통신 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 계속 최고가 되기 위해 뛰는 젊은 기업이 (주)새롭기술이다. ◆